

# “오만, 오기만 해보라”



손흥민

## 한국, 내일 오후 2시 아시안컵 첫 조별리그

한국 축구 대표팀이 55년 묵은 한을 풀고 아시아 최강 지위를 확인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딘다.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10일 오후 2시(한국시간) 캔버라 스타디움에서 중동의 복병 오만과 2015 호주 아시안컵 A조 1차전에 들어간다. 한국은 오만, 쿠웨이트, 호주와 함께 A조에 편성됐다. 오만을 반드시 꺾어야 8강 출전권이 주어지는 조 1, 2위를 향한 길이 순탄해진다.

첫 단추를 잘 끼우기 위한 슈틸리케 감독의 핵심 병기로는 손흥민(레버쿠젠)과 이청용(볼턴)이 꼽힌다. 이들 테크니션은 좌우 날개 공격수로 포진해 슈틸리케호의 제로톱 전술에서 전후좌우를 마구 누비는 핵심 병기로 활약할 예정이다.

슈틸리케호의 4-2-3-1 전술 대형의 최전방에는 상대를 교란하면서 한방까지 노릴 ‘가짜 공격수’ 조영철(카타르SC)이 포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경험이 풍부하고 활동량이 많은 이근호(엘자이시), 새내기 타깃맨 이정협(상주 상무)이 최전방에 선택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난 4일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마지막 실전 담금질에서 이근호보다 조영철이 슈틸리케호의 색깔을 적절하게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정협은 막판에 투입돼 지친 상대에 한방을 터뜨리는 조커로서 자질을 입증했다.

조영철, 손흥민, 이청용의 삼각편대의 뒤를 받칠 공격형 미드필더에는 남태희(레쿠아)가 떠오르고 있다. 구자철(마인츠)이 이 포지션의 주인으로서 맹활약했으나 그는 컨디션이 다소 저하돼 회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격과 수비를 연결할 중앙 미드필더에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맹활약하는 기성용(스완지시티)이 포진한다. 그는 구자철 대신 주장완장을 차고 승리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기성용의 정교하고 창의적인 볼 배급을 보조하며 중원의 주도권을 지킬 수비형 미드필더로는 한국영(카타르SC)이 거론된다. 좌우 풀백으로는 박주호(마인츠)와 김창수(가시와 레이솔)가 주목된다.

멀티플레이어 박주호는 김진수(호엔하임)에게 왼쪽 풀백을 내주고 한국영 대신 수비형 미드필더로 활약할 수 있다. 다른 오른쪽 풀백 차두리(FC서울)는 경미한 무릎 무상 때문에 재활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최근 훈련을 무난하게 소화했다.

중앙 수비수로는 사우디아와의 평가전에서 무실점을 기록한 김주영(상하이 동아), 장현수(광저우 푸리)가 일단 주목을 받는다. 다른

### 2015 아시안컵 오만전 예상 선발 라인업



### 손흥민·이청용 좌우날개

### 밀집 수비 뚫는게 관건

### 역대 전적 3승 1패 한국 우위

센터백으로 박태휘(알힐랄), 김경권(광저우 헝다)이 있다.

슈틸리케호는 일단 스피드에 자신감이 있는 김주영을 중심으로 조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골키퍼 장갑은 김진현(세레소 오사카)이나 김승규(울산 현대)가 걸 것으로 예상된다. A매치 경험이 가장 풍부한 정성룡(수원 삼성)은 부상 때문에 최근 훈련을 몇 차례 결러 감각을 끌어올리고 있다.

슈틸리케 감독은 “볼을 많이 소유하고 적극적으로 공세에 나서 보는 이들을 즐겁게 하는 축구를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국은 오만과 지금까지 4차례 맞붙어 3승1패로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대결이 2004년 2월로 무려 16년 전인 만큼 상대 전적에 큰 의미를 둘 수는 없다.

한국은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이 69위로 오만(93위)보다 24계단 높다. 오만은 2003년 10월 오만 무스카트에서 열린 아시안컵 예선에서 한국을 3-1로 꺾는 파란을 일으켰다.

현재 오만의 간판스타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수준급 골키퍼로 활약한 베테랑 알리 알함시(위건)다. 오만 리그에서 뛰는 필드 플레이어들은 함께 오래 발을 맞춰온 까닭에 조적력이 탄탄하다는 관측을 받고 있다.

폴 르갱 오만 감독은 “한국이 우리보다 한 수 위인 것은 분명하지만 한국을 계속 피곤하게 한다면 경기 결과는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의욕을 불태웠다. /연합뉴스



기성용

## 아시안컵 ‘워터브레이크’

### 경기 중간 3분씩 휴식제 적용키로

한여름 호주에서 열리는 올해 아시안컵에서 ‘워터 브레이크’의 진풍경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오후 한국과 오만 축구 대표팀의 훈련이 열린 호주 캔버라 매켈라 스타디움의 기온은 오후 4시께에도 섭씨 30도를 훌쩍 넘었다.

대체로 건조한 까닭에 그늘에 서면 더위를 덜 느끼지만 땀방 아래에서는 타는 듯한 고통이 급습한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 그늘 한 점도 없는 필드에서 선수들이 전·후반 90분을 땀을 흘리며 경기 자체가 고역일 수밖에 없다.

아시아축구연맹(AFC)은 선수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작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첫선을 보인 ‘워터 브레이크’를 이번 대회에 적용한다.

이는 더위에 지친 선수들이 경기 중간에 3분 정도씩 물을 마시며 쉬도록

하는 제도다. AFC는 경기가 시작되던 한 시간 전에 해당 경기에 워터 브레이크를 적용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주심이 전·후반 30분씩 한 차례씩 경기가 중단되는 틈을 봐서 재량껏 워터 브레이크를 선언하기로 했다.

오는 10일 한국과 오만의 A조 1차전은 캔버라 스타디움에서 현지시간으로 오후 4시에 시작된다. 강렬한 햇살이 기승을 부리는 시간이다. 캔버라 지역의 땀방 더위에 대한 선수와 감독들의 반응은 각기 달랐다.

한국의 주장 기성용(스완지시티)은 “어차피 땀기는 두 팀에 모두 같은 것”이라며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폴 르갱 오만 대표팀 감독은 “프로 선수라면 이 정도의 더위는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고 선수들의 정신력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박소연

## 나주출신 박소연, 쇼트 1위

### 피겨 전국종합선수권 60.40로 첫 60점대

‘포스트 김연아’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나주 출신의 피겨 기대주 박소연(18·신목고)이 개인 첫 종합선수권대회 우승을 향해 한차례 출발했다.

박소연은 8일 서울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열린 KB금융 코리아 피겨스케이팅 챔피언십(제69회 종합선수권대회) 이틀째 시니어 여자 싱글 쇼트에서 60.40점을 받아 선두로 나섰다.

박소연은 기술점수(TES) 34.81점과 예술점수(PCS) 25.59점을 받았다.

박소연은 지난해 시니어 무대에 진입, 한국 선수로는 김연아 이후 처음으로 두 개의 그랑프리 대회에 초청받는 등 한국 피겨를 이끌어갈 재목으로 꼽히는 유망주다. /연합뉴스

그는 지난해 12월 열린 랭킹대회에서 시니어 4연패를 달성하는 등 김연아 이후 국내 최강자의 입지를 다져 가고 있다. 그러나 종합선수권대회에서는 아직 정상에 오른 적이 없다.

동갑내기 국가대표 동료인 김해진(18·과천고)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이 대회 3연패를 이뤘고, 박소연은 늘 2~3위에 그쳤다.

2013년과 지난해에는 김해진을 제쳤지만 김연아가 국내 무대로 돌아온 터라 연달아 준우승에 만족했다.

그러나 김연아가 은퇴한 후 첫 종합선수권대회에서 쇼트프로그램 선두로 올라서면서 우승 꿈을 키웠다. 박소연은 이날 세 차례의 점프를 실수 없이 소화하는 ‘틀린 연기’를 선보였다. /연합뉴스